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경 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북한 초·중등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비교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송경남

남북한 초·중등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비교연구

김 경 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송경남

# 인 준 서

송경낭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강 태 훈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김 경 회 (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 김 병 찬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냉전시대 이념 대립의 산물인, 현재 세계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극단적으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추구한 결과,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이질화 현상을 겪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이러한 남북한 구성원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교육을 통한 변화를 들 수 있는데,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따라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남북한 모두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 전문가 및 생활 지도자로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학습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상이한 교육이념 하에서의 남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원 양성 과정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통일 후의 교육통합에 대비한다면 남북한 구성원들의 동질성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과 학제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남한과 북한의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현황, 입학시험, 교육과정, 교원자격 부여 방법을 비교·분석한다.

셋째, 남한과 북한의 초·중등교원 선발과 임용 과정을 비교·분석한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통일 후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통합에서 제기될 문제의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남북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과 학제,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현황,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시험과 교육과정, 교사자격 부여, 신규 교원 선발과 임용 등을 차례대로 비교·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해 보았다.

남북한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유사점은, 보통교육 체제에 있어서 무상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하고, 목적형 체제의 독립형 기관의 성격을 갖는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을 국가가 운영하며,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보다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별도의 절차 없이 교원양성기관 졸업 요건을 만족하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반면에, 남북한의 학제와 의무교육기간,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에서의 차이점은, 남한의 학제는 6-3-3-4년제이지만 북한은 (1)-5-3-3-4(6) 학제로 북한보다 남한의 초등학교 과정이 1년 더 길고, 의무교육의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남한의 의무교육기간인 9년보다 3년이 더 긴 12년이며,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이 다양한 루트로 양성되는 개방형 체제의 통합형 기관인데 반하여 북한의 사범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목적형 체제의 독립형 기관이라는 점이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의 경우, 남한은 학업능력에 따른 자율 경쟁임에 반하여 북한은 입학 전형요소에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 경제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상이한 점이다. 그리고 남북한의 교원양성기관 교과목과 교과내용, 신규 교원 임용에 있어서도, 남한은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목이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

는 반면에 북한의 교직과목은 미분화 되어 있고, 남한에서는 교양, 전공, 교직 과목을 이수규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강하게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정치·사상 과목인 혁명력사,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등을 전학년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고 있고, 신규 교원 임용 시 남한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만 공립교사로 임용되지만, 북한은 임용시험이 별도로 없고 교원양성기관 졸업 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모두 임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 후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에서 제기될 주요 현안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단절되고 심화된 교육이념의 차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근본적인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남북한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학제와 의무교육 기간의 통합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정치사상과목을 통합 과정에서 배제시켜야 할 것이고, 비사범계와 구분되는 교직과목을 남한과 같이 세분화 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의 자질과 수준이 미흡한 교사 및 북한의 사상과목 담당 교사들의 교원연수를 통한 평가 후 재배치나 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이슈로 제기될 것이다.

주제어: 남북한 교육이념, 남북한 학제, 남북한 의무교육기간, 남북한 교원양성기관 현황, 남북한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 남북한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남북한 신규 교원 선발, 남북한 교원임용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II. 이론적 배경	4
1.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4
2. 선행연구 분석	7
III. 연구 방법	11
1. 연구방법	11
2. 분석틀	12
IV. 연구 결과	14
1. 남북한 교육제도	14
가. 남북한 교육이념	14
나. 남북한 학제와 교육체제	15

2. 남북한 교원양성기관	20
가. 현황	20
1) 남한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20
2) 북한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26
나. 입학시험	30
1) 남한의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	30
2) 북한의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	34
다. 교육과정	37
1) 남한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37
2) 북한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42
라. 교원자격 부여	45
1) 남한의 교원자격 부여	45
2) 북한의 교원자격 부여	49
3. 남북한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	50
가. 교원선발시험	50
1) 남한의 교원선발시험	50
2) 북한의 교원선발시험	54
나. 선발인원과 임용	54
1) 남한의 선발인원과 임용	54
2) 북한의 선발인원과 임용	56

V. 논의 및 결론	57
1. 논의	57
2. 결론	64
참고문헌	70
ABSTRACT	76

## 표 목 차

<표 1> 문헌 연구 방법 .....	12
<표 2>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변화 .....	16
<표 3> 북한 학제 개정과 의무교육제도 변화 .....	19
<표 4> 남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 .....	20
<표 5> 남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I .....	21
<표 6>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 전공 학과 현황 .....	22
<표 7>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 .....	23
<표 8>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I .....	24
<표 9> 북한 교원양성기관 변화 표 .....	27
<표 10> 북한의 교원대학 현황 .....	28
<표 11> 북한의 사범대학 현황 .....	29
<표 12> 한국교원대학교 2015학년도 교직 적·인성 면접 문제	32
<표 13> 경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편제 .....	38
<표 14>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39
<표 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과과정 .....	40
<표 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교과과정	41
<표 17> 북한 교원대학 교과목 .....	43
<표 18> 김형직사범대학, 리계순사리원1사범대학 학년별 교과목	44
<표 19>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	46
<표 20>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	48
<표 21> 초등교사 임용시험 과목, 배점 및 시간 .....	51
<표 22>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험과목 및 배점 .....	52
<표 23> 남한과 북한의 학제 비교 .....	58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	13
-----------------------	----

# I.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세계화가 각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개발은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각국은 교육 혁신을 통한 장기적인 교육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교사’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 기법 등을 개발하는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서 학교 조직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일선의 담당자로서 이러한 교육 혁신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교육이념이 다른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교육이념에 걸맞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몇 번의 연설과 간담회에서, “부모 다음으로 학생의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교단에 선 교사들이다.<sup>1)</sup>”, “한국의 교육제도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 한국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전문가로서 존경받는 직업이다.<sup>2)</sup>” 라고 하였고, 북한에서도 “교육신문”과 “로동신문”에서 “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만년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sup>3)</sup>”,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

---

1) 주한 미국 대사관, 2011년 1월 25일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

<[http://korean.seoul.usembassy.gov/p\\_gov\\_012511.html](http://korean.seoul.usembassy.gov/p_gov_012511.html)>

2) 연합뉴스 TV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zJFoUmmOn0>>

3) 교육신문, 제12호 2012년 3월 22일자.

가이다.<sup>4)</sup>” 라고 하며 교육과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높은 교육열과 교사에 관한 관심도 예외는 아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이 유지될 경우 2018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sup>5)</sup>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입시에 대한 관심은 변함없이 높으며, 때때로 교원의 권위가 침해받고 무너지는 학교현장의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인기와 경쟁률은 높다<sup>6)</sup>. 말하자면, 교육이 국가 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교사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시대 이념 대립으로 현재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는 반세기 이상 극단적으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교육분야 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이질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2014년도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26.9%, ‘약간 필요하다’는 28.9%로, 이 둘을 합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55.8%였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률은 2008년~2014년의 5년 동안 한 번도 60%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응답률은 42.4%로 나타났고 통일이 가능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20년 이내’ (22.5%) > ‘30년 이상’ (19.8%) > ‘30년 이내’ (17.7%)로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먼 장래에 가능한 일로 생각하였다(2014 통일의식조사).

4) 로동신문, 250호 1977년 9월 7일자.

5) 국가기록원, 학령인구감소,

<<http://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425&pageFlag=>>

6) 2015학년도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임용 제1차시험 최종 경쟁률은 약 13:1임, 서울특별시교육청<<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23&bbsBean.bbsSeq=278>>

그렇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한반도 통일시대를 가정하고, 남북한 통일 후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의 통합에 관한 연구와 방안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 분야는 통일 한국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남북한 모두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교과 전문가 및 생활 지도자로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에게 학습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교육이념, 교육과정, 교원양성제도 등의 교육통합에 대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면 통일 후 큰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분단 이후 이질적으로 변화된 대한민국(이하 남한)과 북한의 상반되는 교육이념과 학제 및 교육체제를 비교·분석한다.

둘째,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발전되어 온 남한과 북한의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현황, 입학시험, 교육과정, 교원자격 부여 방법, 초·중등교원 선발과 임용에 이르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한다.

셋째, 위의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과 북한의 통일 후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통합에서 제기될 주요 현안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교원이라 함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교사, 수석 교사, 교감, 교장, 교수, 총장, 학장, 전임 강사 등을 포함한다(이범용 외, 2015:119).

#### 가. 교원양성제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인격적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교원양성체제를 모색하여야 한다.

교사양성교육에서 세 가지 이론적 관점이 있다. 첫째, 이상적, 합리적 전문인 양성으로서의 합리주의적 관점이 있고,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 자체체로서의 사회 시장적 관점이 있으며, 셋째, 실용과학으로서의 해석학적 관점이 있다(Hargreaves, 1993: 재인용 정태범, 2002).

합리주의적 관점은 고등교육기관이 전통적으로 택하고 있는 교원양성 형태로 우리나라(남한) 교원양성에서도 취하고 있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교사를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전문직이라는 전제하에 교사양성기관에서 그 목적에 따라 교원을 양성하면 교사들 스스로가 그 기능과 역할을 스스로 심화시켜 전문성을 신장하여 훌륭한 교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회 시장적 관점은 서구 민주사회에서 교육을 공공의 서비스 차원에서 보는 시장 경제이론 견해이다. 교원양성기관은 교사교육의 결과

를 진열해 놓은 점포의 역할을 하고 고객은 점포에 진열해 놓은 교사교육의 결과를 매매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시장의 필요에 의해 교원이 양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석학적 관점은 상황 인식적 이해에서 출발하고 전체 구성 요소로써 구체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교사교육에서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교육적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교사들의 상황인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양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교원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로 직무를 수행하므로 교원양성기관을 통한 직전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교원양성제도는 목적형 양성제와 개방형 양성제로 구분되어 진다.

목적형 양성제도는 교원양성기관 입학과 동시에 임용이 보장되는 제도로 교직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교과 교수법 개발이 용이하고 교사양성의 양과 질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으며 교사 수급상의 차질을 방지할 수는 있으나 획일성과 편협성의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남한)의 초등 교원의 대부분이 교육대학교에서 양성되고 있고, 북한의 소학교와 중학교 교원 양성기관인 교원대학교와 사범대학이 이러한 목적형 양성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방형 양성제도는 교원 양성을 위한 특정 기관 없이 모든 대학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주고 경쟁을 통한 교원임용을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다양한 특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다양성과 융통성의 장점이 있으나 해마다 교원 수급사정에 따라 부족인원을 충원하므로 공급 부족 또는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등 교원 양성 체제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나. 교원임용제도

남한의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6항에는 “임용”을 신규 채용·승진·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 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0조 제2항에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좁은 의미의 임용은 조직의 결원을 보충하는 활동이며, 그 중에서도 교사의 신규임용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중요한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신현석 외, 2011).

현행 남한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는 교사의 신규채용을 공개전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한의 국·공립학교 신규 교원은 1991년 이래 각종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들 중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고, 교육부장관이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해당 교육감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공개전형 방법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에 나타나 있는데 제1차시험은 기입형·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이고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 포함)평가로 한다.

남한의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임용권을 전적으로 학교 경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신규 채용방법은 보통 학교단위로 추천, 공개채용 방식, 교육청 위탁(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등의 비공개 또는 공개로 교원을 신규 채용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최근까지 연구된 남한과 북한의 교육 관련 연구는, 1) 북한 교육제도·정책의 실태 연구, 2) 남한과 북한의 간호교육, 미술교육, 고전문학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 등과 같은 특정 교과에 대한 비교 연구, 3) 남한과 북한의 특정과목 교과서의 교과과정과 내용 비교 연구, 4) 통일대비 남한과 북한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5)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에 관한 비교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2010년 이전에는 학술지 논문보다는 석사학위 논문에서 남한과 북한 교육의 연구가 많았으며, 2012년 이후에는 남북한 교사역할 비교·분석과 통일대비 교육통합 등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와 논문 몇 편이 있다.

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중, 김지수(2013)의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저자는 다른 문헌의 일부를 인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북한의 의무교육제도에 대하여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부터 11년제 의무교육제까지의 변천과정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경제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2012년도에 발표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라는 교육개혁이 학교정상화의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조금 보이지만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은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특정 교과의 비교 연구 중, 서정택(2005)의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교과서의 대수영역의 내용 비교”가 있다. 연구자는 남한과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중학교, 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단원별 주요내용 및 용어, 공식 등의 표를 만들어 비교하였다. 교과서 내용에 관

하여는, 남한에 비하여 북한의 수학과목 배정 시간이 더 길고, 실생활에 쓰이는 한글을 많이 이용하며, 적은 지면에 많은 문제를 할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제언으로 남북한의 공통 학제, 수학용어의 개정과 북한의 교과서 연구나 교육방법 공개 등 활발한 민간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일 대비 남한과 북한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중, 한만길 외(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남북통일을 화해협력-국가연합-통일국가 단계에서 단계적인 교육통합 방안을 개발하였고, 문헌연구, 전문가 대상의 여러 번의 조사를 통하여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행정체제, 교원제도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제언으로 남북한 교육의 유사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통일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며 통일이전에 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에 관한 비교 연구에는 김동별(1997)의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 이애시(2006)의 “통일 대비 남북한 교원양성체제 비교 연구”, 김병찬(2008)의 “남한과 북한의 교사 양성 과정 비교 연구”, 송두록(2008)의 “남북한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례 비교 연구”, 김정원 외(2014)의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가 있다. 김동별은 남북한의 중등교원 양성제도의 변천, 교육과정, 입학 및 졸업조건을 분석하면서 남한의 교원선발과정의 독자성 제고, 교원공급 과잉으로 인한 교원양성기관 재편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북한의 경우는 교원의 사상, 자율성과 창의성 결여, 교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질의 저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애시는 남북한의 교사관과 지위, 교원연수, 교원양성기관 교과과정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고 통일지향적 교원양성체제 방향으로 교원교육의 목표와 교원의 역할 재조

정, 교사 평가인증제, 교육통합을 위한 학술 교류·협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병찬은 남북한 교사양성교육의 역사적 배경, 이념 및 목적, 현황, 교육과정, 교사양성기관 입학 및 교사자격 수여 측면으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남북한 교육통합을 위하여 교사양성교육의 이념적 편향 격차 완화, 남북한 공동 교육과정과 교직과목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송두록은 남북한 통일 대비 교육정책 과제 해결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사범대와 김형직 사범대학의 사례를 들어 남북한의 중등교사 양성체제를 상세히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두 대학은 각각의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우수한 학생들의 유인여건과 교사자격, 무시험검정으로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일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나 체제에 따른 교사 양성 목적, 교육비 부담 주체, 교수방법과 교육환경면에서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정원 외는 남북한 교사 역할을 문서에 표방된 교사 역할, 인식 프레임 차원에서의 교사 역할, 탈북학생과 학부모의 경험적 인식으로부터의 교사 역할로 나누어 자세히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교사통합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였다.

이상의 남북한의 교원양성 비교연구 선행연구들을 보면, 7~8년 전의 비교적 오래전에 발표된 논문이고, 최근에 발표된 한국교육개발원의 두 편의 연구보고서는, 남북한의 학제, 교육과정, 교원제도, 교육행정체제, 교육문화 등의 전반적 내용을 비교한 후 주제별 교육통합 방안에 초점을 맞추거나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자료와 문헌을 최대한 활용하여 초·중등교사가 되기 전 과정부터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 입학 후 교육과정, 교원자격 부여, 졸업 후 교원 선발과 임용·배치에 이르는 과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통일

대비 교원양성제도 통합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 방법

위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남한 자료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 자료, 각 대학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북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발간하는 “통일문제 이해”, “북한이해”, “통일백서”,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과 매월 발간하는 “월간남북교류동향” 과 “월간북한동향”, 연합뉴스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연감”,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를 최신 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렇지만, 본 연구에 필요한 북한 교육 부분의 양이 매우 적고, 시중 출판사를 통해 간행되는 북한 교육 관련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고 출간 연도도 오래 되어서 최신 북한 교육 관련 자료 검색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최신 북한 교육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탈북자 단체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비교적 신뢰성 높은 사이트를 선정하여 일부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자료에 대하여는 과거 선행 연구자의 연구로부터 재인용 하였다. 북한 교육 자료는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간행하는 교육 관련 연속간행물인 “교육신문” 이나 “로동신문” 등으로부터 최신 정보를 얻었다. 단, 북한에서 발행하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저작집이나 담화문은 북한 체제 선전성이 강하므로 인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배제하였다. 문헌 연구 방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문헌 연구 방법

	문헌 자료	온라인 자료
남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간 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li> <li>■ 한국교육과정평가원</li> <li>■ 각 대학 홈페이지</li> <li>■ 서울시 교육청</li> </ul>
북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이해</li> <li>■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li> <li>■ 북한연감</li> <li>■ 교육신문</li> <li>■ 노동신문</li> <li>■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li> <li>■ 학술지 논문</li> <li>■ 학위 논문</li> <li>■ 출간 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부 북한정보포털</li> <li>■ 통일부 북한자료센터</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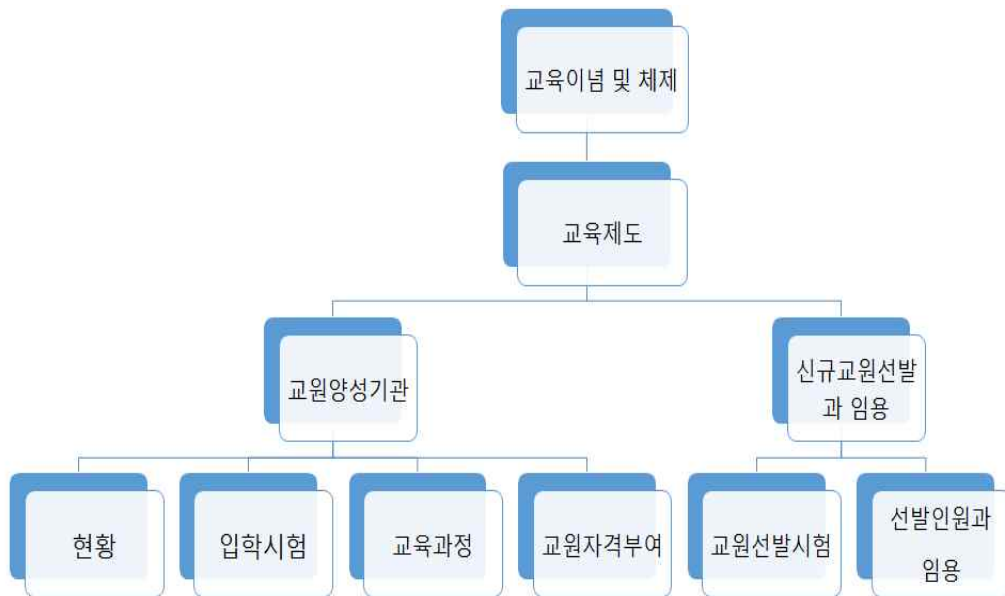
문헌분석 방법 외에 다수 탈북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북한 교육 관련 이론 및 자료 등과의 동질성을 비교·확인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탈북교사들의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 2. 분석 틀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래 남한의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민주시민의 양성을, 북한의 교육이념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공산주의적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하여 각각의 체제에 맞는 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교육이념 위에 정립된 남북한의 학제와 교육체제를 바탕으로 한 교육제도 중, 미래 세대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가

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교원을 양성하는 제도에 대하여 논구하였다. 남북한의 교원양성제도는 교원양성기관과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교원양성기관은 다시 현황, 입학시험, 교육과정, 교원자격부여로, 신규교원선발과 임용은 교원선발시험과 선발인원과 임용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남북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 틀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연구의 분석 틀

## IV. 연구 결과

### 1. 남북한 교육제도

#### 가. 남북한 교육이념

남한의 교육이념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에 북한의 교육이념은 북한의 교육헌장이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명시되어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연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총론적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2011 북한연감). 아래는 1977년 9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일부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것이다.”(로동신문, 250호 1977년 9월 7일 )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로동신문, 250호 1977년 9월 7일 )

즉, 통치 이념이기도 한 주체사상<sup>7)</sup>에 기초하여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북한의 교육이념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의 내용을 근간으로 북한은 1999년 8월 11일 건국 후 최초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교육법”을 채택하고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교육의 실용적·개방적 측면을 명시하고 있다(통일교육원, 2012). 아래는 북한 교육법 제3조에서 밝힌 교육의 목적이다.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이다.”

테제 이후 북한의 교육방침은 교육법(1999), 보통교육법(2011), 고등교육법(2011), 최고인민회의 법령(2012) 등으로 적지 않게 바뀌기는 하였으나 교육목표는 변함이 없다. 2009년 4월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43조에서는 북한의 교육목적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에서 ‘주체형의 새 인간’으로 바꾸어 기술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4).

#### 나. 남북한 학제와 교육체제

남한의 학교제도(이하 학제)는 미군정 시대에 제정한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 학제가 큰 변화 없이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유지되고 있다(김영철 외, 2006). 현재 남한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의 6-3-3-4제이다.

---

7)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상이다”라고 말했으나 대내외 정세 변화에 부응하여 변화를 거듭해오다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 구속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4월 개정된 노동당 규약 서문에서는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 대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북한은 <표 2>와 같이 해방 이후 총 여섯 차례의 학제 개편으로 현재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대학 4~6년의 (1)-5-3-3-4(6)년제의 학제를 가지고 있다.

남한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초등무상의무교육을 규정하고 1950년 시행하려고 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지연되었고 휴전 직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1954~1959)’을 세우고 1954년부터 시행, 1971년에 초등교육 의무교육 정책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의 일부를 수정하여 1985년 도서벽지 중학교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2004학년도에는 전국의 중학교 3학년까지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고 현재 9년간의 의무교육이 실현되고 있다(양승실, 2011). 북한은 <표 2>와 같이 해방 이후 5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추진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실제로 실행되지 못하였고 한국전쟁 이후 4년제 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북한의 의무교육 추진사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7년제 중등의무교육은 1958년에 실시되었고 1958년부터 추진된 9년제 기술의무교육은 정책적 실패를 경험하면서 1967년도에 기초기술교육으로 변경되어 실시되었다. 이후 1973년에는 이전의 의무교육제보다 강력하게 11년제 의무교육이 추진하였고 2012년에 김정은은 12년제 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북한 주민의 지지와 학교교육의 선진화, 경제발전의 동력을 얻고자 하였다(김지수, 2013).

<표 2>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변화

연도	의무교육의 내용
1950년	5년제 초등 의무교육(6·25전쟁으로 중단)
1956년	4년제 초등 의무교육
1958년	7년제 중등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3년)

1967년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인민교육 4년+중학교 5년)
1975~2012년	11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유치원 1년+소학교 4년+중학교 6년)
2013년~	12년제 전반적 의무교육 (유치원 1년+소학교 5년+초급중학교 3년+고급중학교 3년)

출처: 통일부(2014), 2014 북한이해, p.238.

남한은 2004년부터 초등학교 6년간, 중학교 3년간을 무상의무교육으로 전면 실시하고 있고, 북한은 2012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취학 전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을 포괄하는 12년제 무상의무교육 형태를 2013년도부터 실시하여 몇 년 안에 완성하려고 하고 있다. 아래는 북한의 “교육신문”에 발표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내용 중 일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한다.

- 1)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한다.
- 2)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받는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 3)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제 학교전교육과 5년제 소학교, 3년제 초급중학교, 3년제 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
- 4) 2013~2014학년도부터 6년제 중학교를 3년제 초급중학교와 3년제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를 비롯하여 교사조건이 갖추어진 지역들에서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로 갈라 운영하며 교사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학생수가 적은 지역학교들에서는 초급중학반, 고급중학반으로 병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4년제 소학교를 5년제 소학교로 전화하는 사업은 필요한 준비단계를 거쳐 2014~2015학년도부터 시작하여 2~3년 안에 끝낸다...” (교육신문, 제40호 2012년 10월 4일자)

그러나 북한의 무상의무교육의 경우,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한 그 질과 지역 간, 계층 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12년의 무상의무교육은 일반교육체계이고, 성분과 당성에 의해 좌우되는 특수교육체계가 있기 때문에 남한과 비교해 봐야 한다. 북한의 학제 개편은 주요한 정치적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고 해방 후에 총 여섯 차례에 걸친 학제 개편을 하였다. <표 3>은 1946년 이후 북한 학제 개정과 의무교육제도 변화 표이다.

북한은 <표 3>의 기본학제와는 별도로 엘리트를 양성하는 영재학교, 외국어학교 등 각종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 교육과 혁명학원과 같은 출신성분에 따른 특수교육 등도 실시하고 있다.

남한의 학기는 3월 1일 시작하나, 북한의 학기는 현재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남한의 방학은 2015학년도 교육부 학사운영 다양화·내실화 추진 계획에 따라 봄·가을 단기방학이 유도되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여름방학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 겨울방학은 12월 중하순부터 1월 중하순까지였다. 북한의 방학은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봄방학은 3월 마지막 주 7일간, 여름방학은 8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 15일 정도이고, 겨울방학은 12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된다. 북한은 겨울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겨울방학이 더 긴 편이다.

<표 3> 북한 학제 개정과 의무교육제도 변화

1946년 개정		1953년 개정		1959년 개정		1966년 개정		1973년 개정		2012년 개정		
17	고급 중학교	기술 전문 학교		고등 기술 학교		고등 학교	고 등 기 술 학 교					
16		고급 중학교		기술 학교							고급 중학교	
15												
14	초 급 중 학 교	초 급 기 술 학 교	초급 중학교		7년 중등 의무 교육	중 학 교	9년 의무 교육	중 학 교	11년 의무 교육	고등 중학교 (중학교)	12년 의무 교육	초급 중학교
13												
12												
11	인민학교		초등 의무 교육 56년 실시	인 민 학 교	58년 실시	인 민 학 교	67년 실시	인 민 학 교	72- 75년 실시	인민 학교 (소학교)	12년 의무 교육	소학교
10												
9												
8												
7												
6												
5									유 치 원	높 은 반 낮 은 반		높 은 반 낮 은 반
4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4), p.52.

## 2. 남북한 교원양성기관

### 가. 현황

#### 1) 남한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 가) 초등교사 양성기관

남한의 초등학교 양성성기관인 교육대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남한의 초등학교 교사는 10개의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초등교육 전공 등 총 12개의 기관에서 연간 3,848명이 양성되고 있다. <표 4>는 남한에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수와 양성 인원 현황이다.

<표 4> 남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 (단위:명)

구분	국립			사립
	교육대학	교원대	일반대학	일반대학
기관수	10	1	1	1
양성 인원	3583	111	115	39

출처:교육부,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2015), p.21.

남한의 초등교원 양성은 단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형 운영체제이다. 목적형 체제는 국가가 통괄적인 차원에서 교사에 대한 사명감을 갖춘 우수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고 교직에 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으며 교사 자격과 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다양성이 결여될 수 있고 모든 교과 담당교사를 양성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교육부, 2012)

2015년 현재 교육대학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의 10개 지역에 각각 1개교씩 10개가 국립 교육기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이 국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 전공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초등교사 양성기관은 모두 4년제 대학이다. <표 5>는 남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이다.

<표 5> 남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I

설립	구분	대학명
국립	교육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사립	일반대학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출처:교육부,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2015), p.21.

전국의 교육대학교에 공통적으로 개설된 학과는 윤리교육과[도덕과교육], 국어교육과, 사회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생활과학교육과[실과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영어교육과, 초등교육과이고, 특수(통합)교육학과, 유아교육과는 몇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표 6>은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에 설치된 전공 학과이다.

〈표 6〉 서울교육대학교와 경인교육대학교 전공 학과 현황

대학	서울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개설 학과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 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 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 술교육과, 생활과학교육과, 컴퓨 터교육과, 영어교육과, 초등교육 과, 유아·특수교육과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 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 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 교육과, 실과교육과, 교육학과, 유 아교육과, 영어교육과, 컴퓨터교 육과

출처: 서울교육대학교, <<http://www.snue.ac.kr>>, 부산교육대학교,  
<<http://www.bnue.ac.kr>>

한국교원대에는 초등교육과가 개설되어 있고, 제주대학교의 교육대  
학에는 초등윤리교육전공, 초등국어교육전공, 초등사회과교육전공, 초  
등수학교육전공, 초등과학교육전공, 초등체육교육전공, 초등음악교육전  
공, 초등미술교육전공, 초등실과교육전공, 초등교육학전공, 초등영어전  
공, 초등컴퓨터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사범대학  
초등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다.

#### 나) 중등교사 양성기관

교육부의 2015년 교육기본통계<sup>8)</sup>에 따르면, 2012년도 이래 일반대학(4  
년제 대학)은 189개교로 유지되고 있다.

2015년 현재 남한의 중등교사(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양성은 전국  
46개 사범대학, 14개 일반대학 교육과, 150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112  
개 교육대학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업연한은 사범대학과, 일반대  
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4년제 수업과정이고, 교육대학원(교원

8) 교육부(2015). 2015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24.

자격증 발급 학과)은 대부분이 5학기제(2년 6개월)로 운영되고 있다.

<표 7>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

구분	사범계				비사범계			
	사범대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국공립	사립	국립	사립	국공립	사립	국공립	사립
기관수	16	30	1	13	30	120	25	87
양성 인원	3,869	5,721	15	774	2,297	6,985	4,941	9,302

출처:교육부,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교육부, 2015), p.35.

\*비사범계 일반대학 교직과정 부분은 14년도 자료임.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각 학교가 정한 규정 정원 내에서 교직이수 신청을 하고 관련 과목을 수강 완료한 학생들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승인정원이 정해지지 않았음.

\*교육대학원 정원 수치는 자격증 발급 정원이 아닌 총입학 정원임.

즉, 남한의 중등교원 양성은 개방형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방형은 전공교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폭넓은 교양 지식을 축적한 교원을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교직 목적의식 미흡과 교과지도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계획적인 교원 양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교육부, 2012).

<표 8>는 2015년 현재 남한의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육대학원의 설치 현황이다.

〈표 8〉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 현황 II

구분	대학명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교육대학원
국립	강릉원주대			○
	강원대	○		○
	경북대	○		○
	경상대	○		○
	공주대	○		○
	군산대			○
	금오공과대			○
	목포대			○
	부경대		○	○
	부산대	○		○
	서울대	○		○
	순천대	○		○
	안동대	○		○
	전남대	○		○
	전북대	○		○
	제주대	○		○
	창원대			○
	충남대	○		○
	충북대	○		○
	한국교통대			○
	한국해양대			○
교원대	한국교원대	○		○
공립	서울시립대			○
	인천대	○		○
사립	가천대			○
	강남대	○		○
	건국대	○		○
	건양대			○
	경기대(수원)			○
	경남대	○		○
	경성대		○	○
	경희대			○
	계명대	○		○
	고려대	○		○
	고신대		○	○
	관동대	○		○
	광신대			○
	광운대			○
	광주여대			○

	국민대		○	○
	극동대			○
	나사렛대			○
	남부대			○
	단국대(죽전)	○		○
	단국대(천안)			○
	대구가톨릭대	○		○
	대구대	○		○
	대구한의대			○
	대전대			○
	대진대			○
	덕성여대			○
	동국대	○		○
	동국대(경주)		○	
	동덕여대			○
	동신대			○
	동아대		○	○
	동양대			○
	동의대			○
	명지대			○
	목원대	○		
	배재대		○	○
	백석대			○
	부산외국어대			○
	상명대	○		○
	상지대			○
	서강대			○
	서남대			○
	서울여대			○
	서원대	○		○
	서울신학대학		○	
	서울여대		○	
	성결대	○		○
	성공회대			○
	성균관대	○		○
	성신여대	○		○
	세명대			○
	세종대			○
	세한대학교		○	
	수원대			○
	숙명여대		○	○
	순천향대			○
	숭실대			○

	신라대	○		○
	아세아연합신학대			○
	아주대			○
	안양대		○	○
	연세대		○	○
	영남대	○		○
	용인대			○
	우석대	○		○
	울산대			○
	원광대			○
	위덕대			○
	원광대	○		○
	위덕대			○
	이화여대	○		○
	인제대			○
	인하대	○		○
	장로회신학대		○	○
	전주대	○		○
	조선대	○		○
	중부대			○
	중앙대	○		○
	청주대	○		○
	총신대학교		○	○
	추계예술대			○
	한국외대(서울)	○		○
	한남대	○		○
	한동대			○
	한서대			○
	한성대			○
	한신대			○
	한양대	○		○
	협성대			○
	호남대			○
	호서대			○
	홍익대	○		○

출처: 교육부(2015b).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 2) 북한의 교원양성기관 현황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에 아래와 같이 교원양성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은 학제의 개편에 맞추어 변화가 있었다. <표 9>는 1946년 이래 개편된 북한 교원양성기관 변화 표이다.

<표 9> 북한 교원양성기관 변화 표

제도 개편 연도	교원양성기관	수업 연한	양성 대상	입학자격
1946년 개편	사범전문학교	3년제	인민학교 교원	초급중학교 졸업생
	교원대학	2년제	초급중학교 교원	고급중학교 졸업생 사범전문학교 졸업생
1959년 개편	교원대학	3~4년제	유치원 교양원 인민학교 교원 중학교 교원	기술학교 졸업생
	사범대학	4년제	기술학교 교원 고등기술학교 교원	고등기술학교 졸업생
1966년 개편	고등사범학교 (교양원대학)	3년제	유치원 교양원	중학교 졸업생
	교원대학	4년제	인민학교 교원	중학교 졸업생
	사범대학	4~5년제	중학교 교원 고등학교 교원 고등기술학교 교원	고등기술학교 졸업생
1971년 개편	교원대학	3년제	유치원 교양원 인민학교 교원	
	사범대학	4년제	고등중학교 교원	

출처: 김정원 외(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4), p.53.

### 가) 소학교 교원 양성기관

북한의 소학교 교사(남한의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는 3년제 교원대학이 있다. 유치원 교양원(유치원 교사)과 소학교 교원(초등학교 교사)을 양성하는 교원대학은 각 도·직할시에 1개씩 총 13개가 있다. 그 밖에 교원대학 야간학부 및 통신학부를 졸업하고 ‘교원자격 검정시험’을 거쳐 교원이 되는 비정규 과정이 있다(2014 북한연감). <표 10>은 북한의 교원대학 현황이다.

<표 10> 북한의 교원대학 현황

대학명	학과
평양교원대학(삼흥대학)	교원학과 교양원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 통신학과·야간학과 재교육반
남포교원대학	
평성교원대학	
평양제1교원대학	
강계교원대학	
혜산교원대학(삼지연대학)	
김정숙교원대학(회령교원대학)	
신의주교원대학(양실대학)	
선천교원대학	
리수덕 원산 교원대학	
최희숙 함흥 제1교원대학	
함흥 제2교원대학	
사리원 교원대학	
조옥희 해주 교원대학	
청진교원대학(마동희대학)	

출처: 한만길 외(1998), p.167의 표와 통일부(2014)의 북한 주요기관·단체인명록, p.368-410의 교원대학 명단을 참조하여 수정·추가.

교원대학에는 교원학과, 교양원학과, 체육학과, 무용학과가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통신학과와 현직 교사들이 방학 중 강습을 받는 재교육반도 운영한다(백종억 외, 2002). 소학교 일반교

원은 교원학과를 졸업하면 되나 체육교원은 체육학과를 졸업해야만 체육교원 자격이 주어진다.

### 나) 중학교 교원 양성기관

북한의 사범대학은 4년제로 각 도 별로 1~2개씩 총 22개가 있고 4년제 단과대학으로 분리되어 있다. 단, 김형직 사범대학은 교원대학과 사범대학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으로 예과 1년과 본과 5년을 합하여 6년제 대학이다. <표 11>은 북한의 사범대학 현황이다.

<표 11> 북한의 사범대학 현황

대학명	학과
김형직 사범대학, 김철주 사범대학 남포 사범대학(삼광대학), 송도 사범대학 평성 사범대학(명신대학), 원산 사범대학 김정숙 사범대학 강계 제1사범대학(장자산대학), 강계 제2사범대학(천리길대학), 청진 제1사범대학(오중흙대학), 청진 제2사범대학(여명대학) 김종태 해주 제1사범대학, 김종태 해주 제2사범 대학(진명대학), 김형권 신포사범대학 리계순 사리원 제1사범대학, 사리원 제2사범대학(사리원대학) 원산 제1사범대학(금강대학) 차광수 신의주 제1사범대학, 신의주 제2사범대학 평양 제1사범대학, 평양 제2사범대학 함경남도 제1사범대학(김형권사범대학) 함경남도 제2사범대학(새날대학) 함흥 사범대학, 해주 제2사범대학	(김정숙 사범대학 사례) 혁명역사학과, 조선어문학 과, 한문학과, 지리학과, 역사학과, 로어학과, 영어 학과, 수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화학과, 음악학 과, 체육학과

출처: 한만길 외,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p.167과 통일부(2014)의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p.368-410의 사범대학 명단을 참조하여 수정·추가.

## 나. 입학시험

### 1) 남한의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

#### 가) 교육대학교

##### A. 수시

수시모집에서는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보면, 7개 교육대학교에서 50~80% 이상을 고등학교 학생부 위주[종합]의 교직 인성[적성]우수자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 밖에 8개 교육대학교에서 18~50%를 교육감 및 학교장 추천을 포함한 지역인재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다수의 교육대가 저소득층 자녀[기회균형 선발]와 농어촌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를 정원 외로 선발한다.

전형방법은 모든 교육대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포함) 100%로 2~3 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과 교직심층면접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2단계의 면접 전형에서는 대학 자체 개발 면접문항으로 예비 초등교사로서의 교직인성과 적성 능력을 측정하고, 개별면접, 5~6인으로 한 조를 구성해 집단토론을 실시하는 교육대학교도 있다.

지원자격은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고, 모든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교육대학교(광주교대, 경인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도 있다.

##### B. 정시

정시 모집군 가군, 나군, 다군에 총 3회 지원 가능하다. 정시의 모집인원은 수시와 비슷한 인원을 선발한다. 수시가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의 선발이라면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일반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의 전형방법은 1단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2~3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심층면접고사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심층면접고사(교직 적·인성검사 포함)에서는 수험생의 교양, 교육관, 인성 및 교직적성, 의사소통능력, 표현력 및 태도를 평가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의 반영비율을 동등하게 하고, 수학 B형 선택 시 가산점을 주는 교육대학교도 있다.

## 나) 사범대학

### A. 수시

2016학년도 대부분의 국립대 수시모집 전형 유형은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나누어진다. 일부 국립대(서울대, 제주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하기도 하고,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와 같이 논술전형이 있는 대학도 있다. 전형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위주의 선발이다. 예컨대,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3~4배수를 학교생활기록부 점수로 선발한 후, 2단계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점수와 교직 적·인성 면접 및 구술면접 점수를 합계하여 최종 선발한다. 2단계에서 대학과 전형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2단계의 면접평가영역은 교직 적·인성, 가치관, 전공 잠재능력 및 발전 가능성 평가이다. <표 12>는 한국교원대학교 2015학년도 교직 적·인성 면접 문제이다.

〈표 12〉 한국교원대학교 2015학년도 교직 적·인성 면접 문제

2015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오전반)

교직 적·인성 면접 문제지(공개용)

1. 지 문

… (중략) …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09년 1,500건 정도였지만 4년 만에 8천 건에 육박했습니다.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른바 교실 붕괴입니다. … (중략) … 직업적 안정성과 사회적 평판만 놓고 보면 교사는 선호도가 높은 직업입니다. 실제로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가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교사 위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조차 전체의 11% 만이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한다.' 고 답했습니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 (중략) …

< 2014.3.28. KBS1 취재파일K - '중2병' 앓는 교실…멍드는 교사들 중 - 발췌 >

2. 질 문

위 지문은 올해 초 방송된 뉴스 보도의 녹취록 일부로 그 주요 내용은 교사의 권위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에 대해 동의한다면 교권 추락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사가 되었을 때 이러한 교권의 추락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혹은 교권의 추락이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출처: 한국교원대학교. <<http://www.knue.ac.kr>>.

2016학년도 사립대 수시모집 전형 유형은 국립대 전형 유형과 비슷하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나누어지고, 논술전형이 있는 학교도 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100% 반영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점수 위주에 서류(추천서 포함)와 면접 점수를 더하여 합산하는 방법을 취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는 대개 인문계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을,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을 반영한다. 논술전형의 경우, 인문계는 언어논술을, 자연계는 수리논술을 실시하고, 논술 점수 위주에 학생부교과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 B. 정시

수시모집이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학생 선발이라면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학생 선발을 한다(예체능계 학과 제외, 일반전형일 경우). 예를 들어, 대학수학능력시험 100%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90%와 학교생활기록부 10%를 합산하여 선발한다.

### 다)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은 전기(3월 입학)와 후기(9월 입학)로 나누어 1년에 두 차례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대학원 일반전형의 지원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이다. 단, 학부 전공과 동일한 전공분야의 경우에만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학부 전공과 다른 전공분야도 지원 가능하나 석사학위 취득만 가능하며 교원자격증 취득은 불가하다.

교육대학원의 일반전형 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전공심층면접시험(구술 또는 필기시험)으로 선발한다. 서류심사 평가 항목에는 학부 성적, 전공 영역별 경력, 연구계획서, 수상 경력, 전공 관련 자격증, 외국어 능력을 보며, 구술시험에서는 향후 연구계획, 지원 전공분야의 지식, 전공의 적합성, 공인영어학력인증시험 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 2) 북한의 교원양성기관 입학시험

북한은 1980년대부터 정책적으로 제1중학교를 확대하면서 중등교육 체계의 서열화와 함께 제1중학교 및 대학의 입시 경쟁이 심화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실력 본위 교육정책이 실시되고, 간부정책에서 학력과 실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면서 입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무철, 2015). 우등생에 대해서는 소조를 조직하여 선행학습과 대학입학을 위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열등생이나 문제학생에 대해서는 학습과 생활에 대한 개별지도를 담당한다(조정아, 2004).

북한의 대학입학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이 있다. 남한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유사한 것은 “예비시험”이다. 과거에는 추천에 의해서 대학입학 지원자가 결정되었는데, 대학 지정에 권력·연줄·뇌물 등이 개입되는 등 입시가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예비시험을 도입하게 되었다. 예비시험은 시, 군, 구역의 교육성이 주관하며 중학교(남한의 중·고등학교) 졸업생은 전부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비시험은 보통 4월에 시작되는 새 학년도를 5개월 정도 앞둔 10월, 11월에 치러지며, 시험과목은 김일성혁명력사, 김정일혁명력사, 국어, 수학, 영어, 화학, 물리 등 6개 과목이다. 예비시험은 이틀 동안 오전에만 치러지며 하루에 과목당 45분씩 3개 과목을 보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역사 문학·영어는 3개 문항씩, 화학·물리는 이론 2개 문항, 문제풀이 1개 문항씩(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수학은 3~5개 문항 등으로 출제되며 점수는 과목당 5점 만점제이다. 출제되는 시험문제는 혁명역사의 경우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요인은 무엇인가”, “김정일 총비서가 제시한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본질은 무엇인가”, 영어시험은 영작, 해석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한다. 수험생은 이런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대

학별고사를 볼 수 있다. 예비시험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20~30%정도 된다.

학생들의 예비시험성과 지망희망대학을 고려하여 응시대학교를 결정하는 것은 시(구역)·군인민위원회 대학생 모집과이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응시대학교를 결정하여 학생에게 통보해 준다. 학생들의 지망희망학교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1지망 학교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 모집과에서 대학별고사를 치를 학생 명단을 각 중학교에 보내면 각 학교에서는 대학별고사를 보는데 필요한 여러 서류들을 준비한다. 주로 신체검사표, 학생들의 내신성적표,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연합뉴스, 2003). 북한에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추천<sup>9)</sup>을 받아야 한다. 입학추천에는 학업성과 도덕품성,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활동과 같은 조직사상생활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김정원 외, 2014). 예비시험을 거쳐 대학 추천을 받은 학생은 전체 중학교 졸업생의 약 20%이며, 이 가운데 시험에 합격해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평균 10% 수준이며 이들은 “직통생”으로 불린다.

관련 서류가 다 준비되면 학생들은 응시자격을 얻은 대학에 가서 시험을 치른다. 대학별고사는 보통 2월에 실시된다. 대학별고사는 학과시험, 체력장 면접고사로 이루어져 있다. 본고사 경쟁률은 2:1 정도이다. 보통, 학생이 살고 있는 도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부를 잘해서 평양에 있는 대학이나 중앙대학(도 관할이 아닌 교육성이 직접 관장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대학별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학생이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전적으로 대학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가 대학정

---

9) 대학입학 추천권을 “대학 폰트”라고 함(남북동행, [http://www.ydank.org/bbs/board.php?bo\\_table=nk\\_sketch&wr\\_id=14](http://www.ydank.org/bbs/board.php?bo_table=nk_sketch&wr_id=14)).

원수 등을 고려해서 응시 대학을 정해 준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미리 대학시험 응시자의 수를 통제하기 때문에 대학시험에서 과열경쟁은 일어나지 않는다(연합뉴스, 2003). 응시할 수 있는 대학은 보통 시험성적 순에 따라 결정되지만 성품이나 소질도 중시돼 일종의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 또한 학교별 성적 차를 인정하는 이른바 고교등급제 실시로 지역별 학력 차를 감안하여 합격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한다. 경제난 이후 부정 입학, 성적 조작 등 교육 비리가 확산되면서부터 대학의 입학 요건은 성적과 출신성분 이외 교재·교복·숙식비 등 각종 교육 경비, 학교 시설 정비·유지와 같은 학교 운영 경비 등을 감당할 정도의 경제력이 부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명문 대학 내 당·정간부, 외화벌이 지도원 등 권력층 자녀들의 부정 입학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교육을 불허하지만 부유층을 중심으로 과외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사교육이 유행하게 된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여 국가에서 생계를 지원해주지 못하므로 교사들이 부업으로 개인과외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도시에서는 개인지도를 받는 학생이 20~30%에 이르며, 북한의 상당수 교원이 사교육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교육 비용은 월 5천~1만원(쌀 10~15kg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1). 그러나 사교육이 발각이 되면 교사직에서 물러나게 되거나 감옥에 갇히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진다.<sup>10)</sup>

북한에서도 대학 진학은 중요하다. 시험에 떨어지면 바로 남학생은 군대에 가고 여학생은 직장에 배치되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기 때문

---

10)Voice of America(2011.11.08).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호숙 박사 인터뷰.

이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재수생은 없지만 군대나 직장에 배치되었다가 사회인으로 추천을 받아 다시 대학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송두록, 2008). 제대 군인은 10년 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늦은 나이에 입학한 학생들로 그 비율은 30~40% 정도이며 장기간 공부를 하지 않은 관계로 학업성취도가 낮아 대학의 질적 저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sup>11)</sup>

## 다. 교육과정

### 1) 남한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 가) 교육대학교

교육대학교는 4년의 교육과정으로, 교양, 교직, 전공, 심화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나 졸업까지 총 134~14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교육대학교는 교양과정 영역은 교양필수와 교양선택으로 나누고, 교직과정 영역은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나누어 2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교직 사명감을 높이며, 전공과정 영역에서는 각 교과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며, 심화과정 영역에서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교직과정의 경우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 있고, 전공과정의 경우는 초등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도덕과 교육론, 국어과교육론, 사회과교육론, 수학과교육론, 과학과교육론, 체육과교육론, 음악과교육론, 미술과교육론, 생활과학과교육론, 영어과교육론을 I 과 II로 나누어 두 학기에 걸쳐 가르친다. 체육교육실기, 음악교육실기, 미술교육실기 등 예·체능계열 실기 과목도 두 학기에 걸쳐 가르치고, 컴퓨터와 영어 지도실습 등도 한 학기 동안 가르친다. <표 13>은 경인

11)데일리NK(2007.10.02.). ‘낙방=입대’ 북한예비시험과 한국수능 비교.

교육대학교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 편제이다.

〈표 13〉 경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편제

구분	영역	학점	교과목	
교양과정	기초역량	31		
	학문역량			인문·사회 과학·수학
	창의역량			창의
교직과정	교직이론	24		
	교직소양			
	교육실습			
전공과정	교과교육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교육론 I·II(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생활과학과, 영어과)</li> <li>▪통합교과과목</li> <li>▪실기 I·II(체육교육, 음악교육, 미술교육)</li> <li>▪영어 지도실습</li> </ul>	
	교과실기			
	비교과교육			
심화과정	각 학과별 심화과정	18		
졸업자격인증	영어·한자능력인증	P/F		
교사자격인증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P/F		
졸업논문	논문/프로젝트/포트폴리오	P/F		
합계		142		

출처: 경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http://www.ginue.ac.kr>>

### 나) 사범대학

4년제 대학의 단과대학으로 속해있는 사범대학의 교과과정은 교양, 교직(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전공과목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사범대학의 전공과정은 학과의 전문성이 강조되어 있고, 동시에 중등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교직과목도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교과는 5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해당교과의 교원자격증이 발급된다.

교직과목은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교직이론 과목을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이수해야 하고, 교직소양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실습 과목은 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자세한 교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교직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li> <li>- 교육학 개론</li> <li>- 교육철학 및 교육사</li> <li>- 교육과정</li> <li>- 교육평가</li> <li>-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li> <li>- 교육심리</li> <li>- 교육사회</li> <li>-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li> <li>- 생활지도 및 상담</li> <li>-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li> </ul>
교직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학점 이상</li> <li>-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li> <li>*영재교육 영역(단원) 포함</li> <li>- 교직실무(2학점 이상)</li> <li>-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2학점 이상)</li> </ul>
교육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학점 이상</li> <li>-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li> <li>-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li> </ul>
합계	총 22학점

출처: 교육부(2015).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8.

<표 15>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의 2014학년도 입학자 이후의 교과과정 편제이다.

<표 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과과정

구분		과목	학점
교양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쓰기</li> <li>▪외국어 2과목 이상</li> <li>▪수학 및 연습1/고급수학 및 연습1 중 택1</li> <li>▪수학 및 연습2/물리학1/화학1/생물학1/지구과학/컴퓨터의 개념 및 실습 중 택4</li> <li>▪언어와 문학/문화와 예술 중 택1</li> <li>▪역사와 철학</li> <li>▪정치와 경제/인간과 사회 중 택1</li> <li>▪자연과 기술/생명과 환경 중 택1</li> <li>▪체육계열과목 2학점 필수</li> </ul>	36학점 이상
교직	교직이론	교육학개론(필수)/생활지도/교육심리/교육철학 및 교육사/교육사회/교육행정 및 교육경영/교육방법 및 교육공학/교육과정/교육평가	12학점 이상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교직실무/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6
	교육실습	근무교육실습/교육봉사1/교육봉사2	4
전공과목	전공필수	식물분류학 및 지도법/생태학교육 생물과학실험 및 지도법1 세모생물학교육/탐구학습과 생물실험지도 생물교육론/유전학교육/발생학교육 생물과학실험 및 지도법2 생물교수법/과학적 사고와 논술	60이상 (타전공 이수시)
	전공선택	일바생물학 및 실험2/동물분류학 및 지도법/ 미생물학교육/식물생리학교육/동물생리학교육/ 분자생물학교육/현대생물실험 및 지도법/야외 실습 및 지도법/현대생물학과 교육/환경과 교육	52학점 이상)
졸업요구 이수학점 (단일전공 이수 시)			130

출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http://biologyedu.snu.ac.kr>>

### 다) 교육대학원

대다수 교육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이다. 교육대학원에서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부 전공과 동일한 전공분야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사범대학과 마찬가지로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과목 6학점 이상,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 2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표 16>은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의 2013학년도 입학자 이후 교과과정 편제이다.

<표 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교과과정

구분	과목	학점
전공	(영어)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16 학점 이상
	(영어)교과교육론	
	영미문학개관/영어학개론	
	영어교수법/영어의미론	
	영어구문론 및 문법지도	
	영미어문화/아동문학과 영어교육	
	영어작문 및 쓰기 지도	
	영어듣기 및 말하기 지도	
	영어음운론 및 발음지도	
	영어코퍼스분석/ 현대영국회곡	
교직	교직이론	8 학점 이상
	교직소양	
	교육실습	
논문		P/F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졸업요구 이수학점		24 학점 이상

출처: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http://www.sungshin.ac.kr/gess>>

## 2) 북한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

### 가) 교원대학 교육과정

교원대학은 3년제로 유치원 교양원과 소학교 교원을 양성한다. 교원대학의 교과목은 모두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었으며, 소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과목 내용을 위주로 폭넓은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에 대한 이상화와 학생들을 주체형 새 공산주의 인간으로 기르기 위한 사상 교양강좌로는 ‘김일성 혁명역사’, ‘김일성 로작(당정책)’, ‘김정일 혁명역사’, ‘김정일 로작’, ‘철학’ 교과목이 있고, 교사로서의 교육적 소양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학 및 교수법 강좌로는 ‘교육학’, ‘심리학’, ‘김일성 어린시절 교수법’, ‘김정일 어린시절 교수법’, ‘음악교수법’, ‘우리말교수법’, ‘셈세기 교수법’ 교과목이 있으며 교과교육 영역을 통하여 전과목을 지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로청’, ‘소년단’, ‘군사훈련’, ‘혁명전적지 답사’ 등의 교과외 교육 교과목이 있다(백종억 외, 2002). 이러한 교원대학의 교육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17>과 같다.

3년간 교육학, 심리학, 교과교육, 교수법 등을 배우고 실습, 시험, 답사 과정도 있다.

〈표 17〉 북한 교원대학 교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일성 혁명사</li> <li>· 김일성 로작(현행 당 정책 포함)</li> <li>· 김정일 혁명역사</li> <li>· 김정일 로작</li> <li>· 교육학</li> <li>· 심리학</li> <li>· 철학</li> <li>· 외국어(영어,로어)</li> <li>· 국문강독(5대 혁명가극분석)</li> <li>· 문화어(우리말 문법)</li> <li>· 수학</li> <li>· 물리</li> <li>· 화학</li> <li>· 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li> <li>· 체육((체조, 탁구, 배구, 축구, 농구, 수영 등)</li> <li>· 김일성 어린시절 교수법</li> <li>· 김정일 어린시절 교수법</li> <li>· 음악교수법</li> <li>· 우리말교수법</li> <li>· 썸세기 교수법</li> <li>· 무용(유치원 노래와 춤동작)</li> <li>· 여학생실습(음식요리, 봉제)</li> <li>· 체육무용(예술체조)</li> <li>· 사로청, 소년단</li> <li>· 군사훈련(야외훈련 및 실내병기학)</li> <li>· 교육실습</li> </ul>
---	---

출처: 백종익 외(2002). 북한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교원 양성대학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연구.

#### 나) 사범대학 교육과정

북한의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교육과정은 교수, 연구원,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원 외, 2014:111).

북한의 4년제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3년제 교원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교원양성 대학의 교수 요원과 교육행정기관 간부 양성도 하는 5년제 김형직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차이가 있다(김정원 외, 2014:111).

<표 18> 김형직사범대학, 리계순사리원1사범대학 학년별 교과목

학년	김형직사범대학(중앙)-교육학부	이계순사리원1사범대학(지방)
1	혁명력사 1,2,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화학, 문리, 수학, 외국어, 문학, 체육, 인체해부 등	혁명력사 1,2,3,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영어, 정치경제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체육, 수학, 컴퓨터, 전공과목
2	혁명력사 1,2, 김일성·김정일 로작, 학교위생학, 주체문예이론, 논리학, 교육학, 심리학	혁명력사 1,2,3,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영어, 정치경제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체육, 전공과목 추가, 교도대(군사훈련, 6개월)
3	아동심리학, 현대교육방법, 체육심리학, 교육행정학, 교육공제학, 주체철학, 교육현실연구	혁명력사 1,2,3,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영어, 정치경제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체육, 철학, 교육심리학, 교육학, 전공과목 추가
4	학교관리학, 생산기술교육, 사회교육, 비교교육학, 사회주의경제학, 주체철학, 교육현실연구	혁명력사 1,2,3,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영어, 정치경제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체육, 교육실습, 졸업논문집필
5	세계교육사, 교육사료연구, 전문과제강좌, 교육전공실습, 졸업논문집필	

출처: 김형직사범대학 자료: 한만길 외(1998). p.244.

이계순사리원1사범대학 자료: 김철호(이계순사리원1사범대학 4학년인 2008년 9월까지 재학) 녹취록, 미발간, 임병숙·조호제·남궁정(2010), p.256에서 재인용.

<표 18>에서 보면 리계순사리원제1사범대학의 학생은 매년 큰 비중

을 차지하는 혁명력사 1, 2, 3,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과목 등의 정치사상 교과들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고, 영어, 정치경제학, 논리학, 심리학, 윤리학, 체육 교과도 수강하여야 한다. 한만길(1997)에 의하면 북한 교원양성기관의 학과목 구성 비중은 정치사상 15%, 교양 10%, 교육학 15%, 전공 교과 60%라고 하였다.

교원대학의 교과목에 비하여 전공과목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으나 사범대학도 교원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직과목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개인이 수강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선택권은 없고 교무과 지도원들이 4년간 수강해야 할 과목의 총 시간을 파악해 1년, 1학기씩으로 나누어 시간표를 만든다.<sup>12)</sup>

사범대 4학년이 되면 약 3개월간 현장으로 실습을 나간다. 각 시 교육과에서 실습 나갈 학교를 지정해주면 실습 나갈 학교에서 기존의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임시 담임을 맡는다. <sup>13)</sup>

## 라. 교원자격 부여

### 1) 남한의 교원자격 부여

초·중등교사 자격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표 19>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12) 탈북자 수기(자유북한운동연합,

[http://www.ffnk.net/board/bbs/board.php?bo\\_table=memoirs&wr\\_id=20&page=4](http://www.ffnk.net/board/bbs/board.php?bo_table=memoirs&wr_id=20&page=4))

13) 상동

〈표 19〉 초·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학교별/자격	정교사(2급)
초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대학 졸업한 사람* *교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포함</li> <li>2.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사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li> <li>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초등교사만 선발</li> <li>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li> <li>6.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li> <li>7. 초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li> </ol>
중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범대학 졸업한 사람</li> <li>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li> <li>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li> <li>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를 졸업한 사람</li> <li>5. 대학·산업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사람</li> <li>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li> <li>7. 초등학교의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li> <li>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li> <li>9.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는 제외한다)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임용권자의 추천과 교육감의 전형을 거쳐 교육감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교원연수기관에서 대</li> </ol>

	<p>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직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임용권자의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과 교육감의 전형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출처: 교육부(2015).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17.

교원자격검정에는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이 있으나, 시험검정의 경우는 교원의 수급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1980년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교원자격검정은 무시험검정 중심이라고 하겠다.

“교원자격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면, 남한에서의 초등교원의 경우는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 전공 과정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장이 검정하여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한다.

중등교원의 경우에는 전국 46개 사범대학, 14개 일반대학 교육과, 150개 일반대학 교직과정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와 112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학위취득이 확정된 자 포함)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면 소속 대학의 장이 검정하여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한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한 합격기준은 <표 20>과 같이, 2009~2012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1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도 2009~2012학년도 입학자와 유사하나 교직과목의 교직이론이 2학점 감소하고 교직소양이 2학점 증가했으며 성적기준이 전

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면서 동시에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도 2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것이 변경된 사항이다.

〈표 20〉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학점 이상</li> <li>-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li>-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학점 이상</li> <li>-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li> <li>-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li> </ul>
교직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학점 이상</li> <li>-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li> <li>-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li> <li>-교육실습 4학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학점 이상</li> <li>-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li> <li>-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li> <li>-교육실습 4학점 이상</li> </ul>
성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li> <li>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li> </ul>

출처: 교육부(2015a).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55~133.

교원자격증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및 위탁 받아 ‘시·도교육감’ 및 ‘대학의 장’ 이 수여하는데,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하고 교육경력이 포함되는 무시험검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한다. 교원자격 검정시기는 졸업예정자는 졸업 10일 전까지 검정 완료하고 졸업자는 연 2~4회 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시기에 시행한다. 그리고 남한의 교원양성기관을 포

함한 대부분의 4년제 대학은 졸업요건으로 토익, 토플, 텡스와 같은 공인영어점수 또는 각 대학에서 개설한 졸업인증용 영어강좌 이수 후 일정 성적 이상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졸업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학교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는 그 자격을 박탈한다.

교육부(2015b) 자료에 의하면, 초등교사 양성기관 학부 학생정원 3,848명 중 3,583명(약 93%)이 교육대학교 재학생이므로 초등교원 자격증은 교육대학교를 중심으로 취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중등교원 양성기관은 2015학년도 입학 정원 24,622명 중 사범대학 10,379명(약 42%), 교육대학원 14,243명(약 58%)으로 초등교원 양정보다는 다양하다.<sup>14)</sup>

## 2) 북한의 교원자격 부여

북한의 보통교육법 제30조(교원의 자격)에는 “보통교육부분의 교원자격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 자에게 준다.” 라고 나타나 있다(김정원, 2014). 3년제 교원대학이나 4년제 사범대학(5년제 김형직 사범대학도 포함)의 재학생들은 입학 당시 학업성적, 조직 사상활동, 출신성분 등이 우수하여 검증을 받았으므로, 예비 교원은 대학 재학 동안 교사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국가졸업시험과 졸업논문심사를 통과하면 졸업과 함께 교사자격증을 수여 받는다. 즉, 신규 교원 자격은 별도의 시험 절차가 없이 무시험검정으로 이루어진다(송두록, 2008).

---

14)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2015학년도 승인정원이 없음.

### 3. 남북한 신규교원 선발과 임용

#### 가. 교원선발시험

##### 1) 남한의 교원선발시험

##### 가) 초등교사 임용시험

정확한 시험명은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다.

응시자격은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예정)자이고 응시연령은 제한이 없다.

임용시험에는 대학성적 반영이 된다.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 석차(8학기를 원칙으로 함)를 환산하여 반영하고 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7학기)까지의 성적 석차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 2차 시험 출제를 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공고, 원서교부·접수, 문·답지 운송, 합격자 발표를 맡는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1차에서는 교직 및 교양 전 영역의 논술시험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전 영역의 기입형 혹은 서술형 시험을 치르고,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서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을 묻는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교사로서의 학습지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묻는 수업실연,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실연 등의 시험을 치른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표 21>은 초등교사 임용시험 과목, 배점 및 시간이다.

〈표 21〉 초등교사 임용시험 과목, 배점 및 시간

가. 1차 시험

분야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분)	비고
초등학교 교사	교직논술	20	1	60	논술형
	교육과정	80	22	140 교육과정A(70분), 교육과정B(70분)	기입형, 서술형
	한국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나. 2차 시험

시험과목	시험과목	배점	문항수	시간(분)	비고
2차	교직적성 심층면접	40			구술형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10	1		서술형
	수업실연	35	1	15	구술형
	영어면접 및 영어수업 실연	15	3~4	10	구술형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http://www.kice.re.kr>>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 2015-200호, 201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및 사립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정확한 시험명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다. 응시자격은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예정)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연령 제한은 없다.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초등교사 임용시험과 같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1차 시험 출제 및 채점, 2차 시험 출제를 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공고, 원서교

부·접수, 문·답지 운송, 합격자 발표를 맡는다.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1차는 교육학 전 영역에 해당하는 논술형 시험과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에 대한 기입형 혹은 서술형 혹은 논술형의 전공시험을 치르고,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에서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을 묻는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실기·실험평가(해당 과목) 등의 시험을 치른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5). <표 22>는 2016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과목, 배점 및 시간이다.

<표 22> 서울특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시험과목 및 배점

가. 1차 시험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 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교육학	1교시 (60분)	논술형	1문항	20점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전 공	전 공 A	2교시 (90분)	기입형	8문항	16 점	○ 교육부 고시 제2014-48호(2014.9.2.)의 [별표 3]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중에서 - 교과교육학(25~35%) 교과교육학(론) 및 임용시험 시행 공고일 현재 국가(교육부 등에 의해 고시되어 있는 교육과정까지 - 교과내용학(75~65%)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 ※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출제
			서술형	6문항	24 점	

시험 과목 및 유형				문항수	배 점		출제 범위(비율) 및 내용
전 공 B	3교시 (90분)	서술형	5문항	20 점	40 점	※ 특수(중등) 과목도 동일하게 적용 ※ 비교수 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2문항	10 점			
		논술형	1문항	10 점			
소계			22 문항	80점		-	
계(배점)				100점		-	

나. 2차 시험

시험 과목	출제 범위 및 내용	배 점			비고
		일반 교과	실기 · 실협 교과	비교수 교과	
교직적성 심층면접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원, 인격 및 소양 ○ 학생과의 소통·지도능력 [외국어 과목은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	40	40	10 0	
교수·학습 지도안작성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15	10	·	비교수 교과 제외
수업실연	○ 수업실연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45	20	·	비교수 교과 제외

실기·실험 평가	음악	별도 출제범위 및 내용 참조	·	30	·	해당 교과
	미술	별도 출제범위 및 내용 참조				
	체육	별도 출제범위 및 내용 참조				
	전문계교과	별도 출제범위 및 내용 참조				
	과학교과	전공별 해당교과에 대한 탐구주제 수행능력 평가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세부 평가내용은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계(배점)		100	100	100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 2015-215호, 201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사립)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 2) 북한의 교원선발시험

북한의 소학교와 중학교 교원을 양성하는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은 단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형 운영체제로 볼 수 있다. 목적형 운영체제는 입학과 동시에 임용이 거의 보장된다. 북한의 경우도 교원양성기관 입학은 매우 어려우나 별도의 교원임용시험 없이 졸업시험에 불합격하지 않는다면 졸업과 동시에 교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모두 소학교와 중학교에 배치되어진다.

## 나. 선발인원과 임용

### 1) 남한의 선발인원과 임용

2015학년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연도별 초등교육과 정원은 4년간 3,848명(2012~2015학년도)<sup>15)</sup>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의하면 2015~2016학년도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각각 7,062명<sup>16)</sup>,

15) 교육부(2015).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16) 2015학년도 유·초등학교 임용시험 공고 현황(교육부 보도참고자료).

6,591명이다.

전국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은 2013학년부터 하락하는 추세이다. 2013학년도는 2.06대 1, 2014학년도는 1.52대 1, 2015학년도는 1.37대 1, 2016학년도는 1.28대 1의 경쟁률을 보인다. 생활여건이 우수한 시 지역으로 지원자가 몰리기 때문에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지역은 2년 연속 미달 사태를 맞았다.<sup>17)</sup>

2015학년도 중등교원 양성기관 학년별 정원은 24,622명(2015학년도), 34,324명(2014학년도), 35,449명(2013학년도), 37,885명(2012학년도)로 합계 132,280명이다<sup>18)</sup>. 이에 비하여 2014~2016학년도 국·공립학교 중등 및 비교과 교사 선발시험 선발인원은 각각 5,403명, 5,294명, 5,282명이다.<sup>19)</sup> 중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자, 즉 중등교사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졸업자 모두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임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다수의 졸업자가 임용시험에 임한다고 하여도 높은 임용시험 경쟁률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개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6개월 정도 지나서 발령을 받지만 신규 교사 수요가 크게 줄면 임용시험에 합격해도 발령을 받지 못한다<sup>20)</sup>. 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사가 나간 자리를 신규 교사가 메우지만 각 교육청들의 예산의 감소로 명예퇴직 교사의 수가 급감하였다. 그리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제4조(임용되지 아니한 자의 명부처리)<sup>21)</sup>에 의하면 교원 임용시험 합격 후 3년 안에 발령이 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가 된다. 각 교육청은 사전예고를 통해 신규임용을 최소한

---

17) 베리타스 알파신문. <<http://www.veritas-a.com>>

18) 교육부(2015).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19) 2015학년도 국·공립학교 중등 및 비교과 교사 선발시험 선발시험 공고 현황(교육부 참고자료), 중등 교원임용 전국 5천 282명 채용(고시기획 기사)

20) 서울시 교육청의 초등 신규 교사 발령 비율은 2012년 32.3%, 2013년 45.6%, 2014년 3.5%임(서울시 교육청).

21) “교사임용후보자명부작성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9호)

으로 줄이고 대기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기 발령자를 해결하고 있다.

## 2) 북한의 선발인원과 임용

북한의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모두 채용이 보장되어 있다.

교원양성대학을 졸업한 이후 교사로 학교에 배치를 받기 위해서 학생들은 이력서, 신원진술서, 취직희망서, 신원보증서, 건강진단서, 총장 또는 학장의 평정서, 조직생활을 기록한 청년동맹 위원장의 평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한만길 외, 1998:200).

교원대학을 졸업한 소학교 교원들의 배치는 시·군당 간부부와 교육부, 학교 간부과에서 담당한다. 학교 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만들어 시·군당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에서 검토한 뒤 간부부에서 최종 승인한다. 대체로 해당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내의 소학교로 배치되며 현거주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나 성적과 배경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최영표 외, 2011: 250).

사범대학을 졸업하면 먼저 대학 간부과에서 배치문건을 작성하며, 김형직 사범대학과 같은 중앙급 사범대학의 경우는 중앙당 간부부에 문건을 제출하여 검토한 뒤 승인을 받고, 지방급 사범대학의 경우는 도당 교육부에 문건을 제출하며 도당 교육부에서 배치문건을 검토한 뒤 도당 간부부에 송부하여 최종 승인을 한다. 졸업 후 교원이 되면 급수는 5급을 부여받는다(최영표 외, 2011: 251-252).

## V. 논의 및 결론

### 1. 논의

#### 가. 남북한 교육이념 및 교육체제의 특징

남한과 북한의 교육체제의 유사점은 해방 이후부터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일반 보통교육의 확대’, 즉 의무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있고 단선형 학제로 1년 2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교육이념과 목적에 있어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체제에 적합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남한은 ‘민주주의 시민’을, 김일성-김정일주의<sup>22)</sup>를 당의 지도 지침으로 발표한 북한은 ‘주체형의 새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한다.

학제와 의무교육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근본적인 학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표 3>에서 보듯이 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친 학제개편이 있었다. 남한의 학제는 6-3-3-4년제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 중,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9년간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학제는 (1)-5-3-3-4(6)년제로 취학 전 유치원 높은 반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을 모두 합하여 전반적 12년 무상의무교육제도로 전환 중에 있다.

---

22) 3대 세습 체제를 구축한 김정은이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당 규약을 개정하였다(북한이해, 2014).

<표 23> 남한과 북한의 학제 비교

고등 교육	대학원 (석사 2~3), 박사 2~3)		28	박사원			고등 교육
			27				
			26				
			25				
			24				
			23				
고등 교육	의치대, 한의대, 약대(6년) 일반대학(4) 교육대학(4)	전문대학 (2~3)	22	일반 대학 (4~6)	단과 대학 (3~4)	고등 전문 학교 (2~3)	
			21				
			20				
			19				
중등 교육	고등학교(3)		18	12년 의무 교육	고급중학교(3)	중등 교육	
	중학교(3)	9년 의무 교육	17				
초등 교육			초등학교(6)	9년 의무 교육	16	12년 의무 교육	초급중학교(3)
	15						
	14						
	13						
	12						
	11						
학교 전 교육	유치원	9년 의무 교육	10	12년 의무 교육	소학교(5)	초등 교육	
			9				
			8				
			7				
			6				
학교 전 교육	어린이집	9년 의무 교육	5	9년 의무 교육	유치원	높은반 (1) 낮은반 (1)	
			4				
			3				
남한			연령	북한			

출처: 한만길 외(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2), p.62.를 수정·재구성.

남한의 무상의무교육은 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북한도 12년 무상의무교육을 선전하고 있지만 경

제난이 심해지면서 학생들을 각종 근로 지원, 농사 지원 활동을 나가게 하고 교재와 기자재 구입 및 학교 시설 개·보수 등 학교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등의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의 무교육의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북한이해, 2014). 즉, 남한과 북한 모두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확장하고 있지만 무상의무교육의 질적 차이가 있다.

#### 나. 남북한 교원양성기관의 특징

남한과 북한의 초등교사(북한의 소학교 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종합대학교 내의 단과대학으로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초등교사 양성을 위한 독립적인 운영을 한다는 점이 유사하다(단,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 전공,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제외). 또한 지역별로 1~2개씩 설립되어 있는 점도 공통점이다. 예를 들어, 남한은 인천·경기도(경인교대), 충청남도(공주교대), 전라남도(광주교대), 경상북도(대구교대), 경상남도(부산교대, 진주교대), 서울(서울교대), 전라북도(전주교대), 충청북도(청주교대), 제주도(제주교대), 강원도(춘천교대)등 지역마다 교육대학교가 설치되어 있고, 북한은 각 도·직할시<sup>23)</sup>에 1개씩 총 13개의 교원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 중 사범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과정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의 경우, 남한의 대부분의 교육대학교에는 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사회과교육과,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미술교육과, 생활과학교육과, 컴퓨터교육과, 영어교육과, 초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등의 다양한 전공 학

23) 북한은 함경북도, 함경남도,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양직할시, 황해남도, 황해북도, 강원도 등 10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진다(북한지역정보넷).

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 북한의 교원대학은 통합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학과, 교양원학과, 체육과 무용교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무용학과와 체육학과를 따로 두고 있다. 수업연한에 있어서, 남한의 교육대학교는 4년, 북한의 교원대학은 3년으로 1년간의 차이가 있다.

남한과 북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의 경우,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이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으로 나누어져 개방형의 다양한 루트로 양성되는 것에 비하여 북한은 사범대학이 4년제 종합대학교 안의 단과대학이 아니라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말하자면 북한은 종합대학교 보다는 양성하고자 하는 전문 인력의 성격에 따라 특성화가 된 독립된 단과대학 형태의 사범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사범대학은 약 81.4%<sup>24)</sup>가 사립대학이지만 북한의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은 국가가 설립·운영한다. 대학 학비는 남한의 경우는 수익자 부담이나 북한은 국가가 부담한다(신효숙 외, 2007),

#### 다. 입학시험

남한과 북한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시험을 치러야 하는 공통점이 있다. 남한의 2016학년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수시모집의 지원자격은 대체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말하자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전형요소로서의 반영 여부에 상관없이 지원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도록 한다. 북한의 경우도 대학입학을 위하여, 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남한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한 ‘예비시험’을 필수적으로

---

24) 2015년 기준, 일반대학 중 국립은 34개교, 공립은 1개교, 사립은 154개교임(교육통계 서비스).

로 치러야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해야 ‘본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 입학자격 요건에서 남한은 개인의 학업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지만 북한의 경우 전형요소에 학업성적 이외의 출신성분과 당성이 포함되므로 가정배경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족과 친척 중 출신성분이 불확실한 자, 예를 들어 과거에 지주, 자본가, 종교인, 한국전쟁 당시 국군 동조자가 있으면 성적이 우수하여도 대학자격심사에서 제외된다(김동별, 1997). 그리고 북한의 시(구역)·군인민위원회 대학생 모집과에서 예비시험에 합격한 학생의 점수와 지망희망대학을 고려하기는 한다고 하나 본시험 응시대학을 학생에게 통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북한 학생들에게는 대학선택권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남한의 수시와 정시모집 대학입학경쟁률<sup>25)</sup>은 매년 높다. 북한도 2000년대 초반 실력 본위 교육정책이 실시되면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북한에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일정 액수를 받고 교육을 해준다.

북한은 ‘교육성’이 각 대학의 수험생 수를 할당(신효숙, 2007)해 주고, 대학에 불합격하게 되면 남학생은 군대, 여학생은 직장으로 바로 배치되기 때문에 재수생이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집계한 재수 이상의 졸업생 수능 응시자가 2011년 이후 줄곧 12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남한과 대조적인 현상이다.

남한의 2014년 고교 졸업자 중 70.9%가 대학에 진학<sup>26)</sup>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북한은 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 졸업자가 바로 대학에 진

25) 서울권 주요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은 평균 20대 1 이상(진학사)

26) 2014년도 졸업자 632,983명 중, 448,817명이 대학에 등록하여 대학진학률은 70.9%임(e-나라지표).

학하는 비율이 10% 정도이므로, 대학 진학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 라. 교육과정

남한의 교육대학교와 북한의 교원대학은 교육학 및 교직과목을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하여 교직자로서의 소양을 기르고, 교과교육학(북한의 교수법)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며 초등학교(북한의 소학교) 전교과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사범대학은 모두 초등교사 양성기관보다 전공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교과 전문성이 더 높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는 달리 정치사상 과목인 혁명력사 1,2,3,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등을 전학년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고 비중 있게 다룬다. 이는 교사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혁명가로 보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차이점은 북한은 ‘교도대<sup>27)</sup>’를 통하여 2학년 재학 시 6개월 간 군부대에 동원되는 입영 집체훈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남한의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교직과목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에 근거하여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지만, 북한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경우는,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육실습’ 과목이 있기는 하나 남한처럼 세부적으로 분화되지 않았다.

#### 마. 교원자격 부여

---

27) 북한 민간인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전쟁 발발 시 정규군에 배속되어 전방으로 투입되거나 후방지역의 방어임무를 수행함(통일부, 북한정보포털).

<표 20>과 같이 남한의 교원양성기관에서 교원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교과교육영역 8학점을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포함)을 이수하고 졸업하기 전까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을 2회 받고, 졸업 시에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이면서 동시에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이 되면 별도의 시험 없이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북한도 남한과 같은 자세한 규정은 찾아볼 수는 없으나 교원양성기관 졸업 시에 실시하는 국가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교사 자격이 부여가 된다. 즉, 남한과 북한의 교원자격 취득은 무시험검정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 **바. 교원선발시험의 특징**

북한에서는 교원 임용시험이 별도로 있지 않으나 남한에서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하여 초·중등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도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 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사. 선발인원과 임용**

남한에서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교원양성기관 졸업(예정)자들이 매년 12월에 실시되는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다. 초등교사는 대부분이 국립인 교육대학교에서 양성되는 목적형 체제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2014년 이후 2대 1을 넘지 않으나, 개방형 체제를 취하는 중등교사의 경우는 경쟁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임용시험에서 선발되어야 국·공립 초·중등교사로 임용된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중학교(남한의 고등

학교) 졸업생의 10%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의 문은 좁아도,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원 자격을 취득한 자는 모두 소학교, 중학교, 대학 등에 배치되기 때문에 남한과의 큰 차이점이라 하겠다.

## 2. 결론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한과 북한은 8·25 합의 이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시도를 했으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등의 군사적 위협과 폐쇄적인 정치체제로 인하여 남북 관계는 담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기 다른 사상과 이념 체제하에서 수십 년간 분단된 채 지내온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비록 같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분야와 구성원들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의 이질화로 인하여 수많은 갈등과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성원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교육을 통한 변화를 들 수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각자가 추구하는 이념에 적합한 교육체제와 교사상을 발전시켜왔다. 남한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전문가”로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형 인간을 육성하

는 직업적 혁명가”로 교사를 지칭하며 정치·사상적으로 자신들의 세습체제 유지에 교육제도와 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본질이 많이 왜곡된 상태이다. 통일 한국에서의 교육체제는 현재 남한의 체제에 북한이 흡수될 것인지 남한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북한의 체제를 절충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미래의 통일 한국에서 전개될 교원제도 통합을 생각하며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하여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과 학제, 초·중등 교원양성기관의 현황, 현재 남북한 예비 초·중등교사의 대학입학 준비부터 교사로 임용되기까지의 과정, 즉 교원양성기관의 입학시험, 교육과정, 교사자격 부여, 신규 교원 선발과 임용 등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았다.

첫째, 남한과 북한의 교육이념이 다르다. 남한의 교육이념은 자유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북한의 교육이념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주체형의 새 인간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현행 남한과 북한의 학제와 의무교육 기간이 다르다. 남한의 학제는 6-3-3-4년제로 9년 무상의무교육제이지만 북한의 학제는 (1)-5-3-3-4(6)년제로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취하고 있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수업연한, 양성체제, 운영형태가 다르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남한의 교육대학교와 북한의 교원대학의 수업연한은 각각 4년과 3년으로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목적형 체제로 국가가 운영하며 종합대학교가 아닌 단과대 형태의 독립형 기관이다.

남한의 대표적인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과, 북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같지만, 남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은 다양한 루트로 양성되는 개방형 체제의 통합형 기관인데

반하여 북한의 사범대는 국가가 운영하는 목적형 체제이며 종합대학교가 아닌 독립형 기관이다.

넷째, 남한과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합격 여부에 영향력은 다르지만 남한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북한은 예비시험이라는 시험을 치르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한의 대학입학은 학업능력에 따른 자율 경쟁임에 반하여 북한의 대학입학 전형요소에는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 경제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섯째, 남한의 북한의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은 남한과 북한의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와 교원대학에 비하여 전공 과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교과 전문성이 더 높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교직 과목에 있어서는 남한 초·중등교사 양성기관의 교직과목이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는 반면,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의 교직과목은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여섯째,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은 정치·사상 과목인 혁명력사,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등을 전학년에 걸쳐서 배우도록 하지만, 남한에서는 교양, 전공, 교직 과목을 이수규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강하게 한다.

일곱째, 남한과 북한은 일정과목을 이수하고 일정성적 이상이 되거나 국가졸업시험을 통과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교원양성기관 졸업 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덟째, 남한은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해야만 교사로 임용되거나 북한은 임용시험이 별도로 없고 교원양성기관 졸업 시 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모두 임용되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통일 후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에서 제기될 주요 현안 문제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 방안

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이후 오랜 기간 단절되고 심화된 이념과 사상적 차이로 인한 남북한 구성원들의 적대 의식과 이질감, 무관심은 남북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교육이념의 차이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의 근본적인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의 통일 한국의 교육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인간상을 추구하는 남한의 교육이념을 북한에 적용시키는 방향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남한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sup>28)</sup>의 화해협력 단계의 내용처럼 남북한의 교사와 학생들의 교류 활성화로 통합 여건을 형성한 후 교육이념의 통합도 기대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는 한 교육이념의 통합은 교육통합 중 가장 어려움이 예견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둘째, 남북한의 상이한 교원양성기관 학제의 통합 방안이 요구된다. 남한은 국제표준에 가까운 초·중등 12학년제 즉, 6-3-3-4제를 따르고 있고, 북한은 2012년도의 학제 개편으로 (1)-5-3-3-4(6)제인 11학년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남북 간 1년의 차이를 갖는 보통교육연한을 마친 남북한 학생들이 초·중등교사가 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게 됨으로써 통일 후의 예비교사 간 학력 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의 초등 교사(소학교 교사)를 양성하는, 남한의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 북한의 교원대학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 또한 통일 후의 예비교사 간의 학력 차를 유발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의 학제 통합 방안은 다음과 같이 고려해볼 수 있다.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통교육연한은 국

---

28) 1994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한 통일 방안으로,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1민족 1국가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순서로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국가기록원).

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남한의 12년제로 통일하고, 북한의 3년제 교원대학 과정도 4년제로 개편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북한의 (1)-5-3-3-4(6)제를 남한 학제인 6-3-3-4제 모델로 통합한다면, 북한 학제에서는 초등학교 과정 1년이 부족하게 되지만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과정으로 편입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취학 연령에서 1년 차가 발생되므로 남한의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낮추어 북한의 취학 연령과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제 개편은 통일 후 학제 개편과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셋째,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 대한 통합이 필요하다. 북한의 교원양성기관의 교과과정에는 현 북한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혁명력사, 김일성·김정일 로작, 현행 당정책 등의 3대 세습 이상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는 이러한 사상 과목들을 모두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그 대신 남한보다 부족한 전공과목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예비교사들의 교과 전문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사범계와 구분되는 교직과목을 남한은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세분화시켜 놓았으나 북한의 경우는 교육학 또는 교육심리학 정도만 수강하도록 되어 있다. 남한과 북한은 공통적으로 교사로서의 적·인성, 교직에 대한 사명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남한의 세분화된 교직과목을 북한에 적용함에 있어서 거부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북한의 자질과 수준이 미흡한 교사 및 북한의 사상과목 담당 교사들은 교원연수를 통하여 평가 후 재배치나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남북 통일 후에는 미래지향적인 통일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교원을 양성해야 한다. 객관적인 교원평가를 통하여 교사 자질과 더불어

어 인성도 갖춘 교원 양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남한의 교사들도 교원 평가를 통하여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정기적인 교원 연수를 통하여 자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통일 후 사상과목 폐지와 함께 해임된 북한의 사상과목 담당 교사들은 재교육 과정을 밟아 다른 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직에 있는 남북한 교사들의 실력 차이를 완화시키거나 신규 교사 임용 시험을 위하여 장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멀지 않은 시기에 남북 통일이 실현되어 통일한국에서 미래를 펼쳐 나갈 인재를 키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교사 양성 및 임용제도에 대한 남북한의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김갑성 외(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한국 교원양성교육의 성공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2015a). 201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부(2015b). 2015학년도 교원양성기관 현황.
- 곽승지 외(2007). 현대 북한 연구의 쟁점2. 파주:한울.
- 김경숙(2003). 남북한 초등교육제도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계동 외(2005).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서울:백산서당.
- 김근식 외(2009). 북한체제의 이해-제도와 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명인문화사.
- 김동별(1997). 남북한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찬(2008). 남한과 북한의 교사양성 과정 비교 연구. 통일정책연구, 17(1), 143-179.
- 김상무(2013a).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 교육체제 전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27(3), 99-116.
- 김상무(2013b). 1989-1990년 동서독 교육통합 과정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8(2), 1-22.
- 김영철 외(2006).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 개편 방안, RR 2006-10. 42-68.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 외(2014). 남북한 교사 역할 비교 분석 연구, 연구보고 RR 2014-08.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수(2013). 북한 의무교육제도의 전개와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

- 진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23(3), 59-82.
- 김진만(2011). **북한 체제의 운영 원리와 메커니즘**. 서울:양서각.
- 김진아(2012). 통일대비 남북한 미술교육 통합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실(2001). 통일 후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기봉(2013).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북한학**. 인천:진영사.
- 문장순(2010). 북한 교육의 변화와 당면과제. **남북문화예술연구**, 221-251.
- 박명규 외(2014). **2014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서울특별시 교육청(2015a). 201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및 사립 특수학교(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 2015-200호,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2015b). 201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국·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 제 2015-200호,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정택(2006). 남북한 중등학교 수학 교과서의 대수 영역의 내용 비교.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두록(2008). 남북한 중등교사 양성체제 사례 비교 연구-서울대학교 사범대학·김형직사범대학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상명 외(2014). **교육과 행정**. 서울: 가람문화사.
- 신현석 외(2013). **학습사회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양승실(2011). **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안**, 현안보고 OR

- 2011-03-9. 한국교육개발원.
- 양자운(2010). 북한 중등학교제도 연구-학제, 학교조직, 교육과정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합뉴스(2003). **2003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 연합뉴스(2011). **2011 북한연감**. 서울: 연합뉴스.
- 왕한신(1999). 남북한의 초등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비교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평수 외(201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고양:공동체.
- 윤세정(2003). 남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윤(2008). 북한의 교원양성제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무철(2015). 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8(1), 128-168.
- 이범웅 외(2015). 교사와 교직 생활. 서울:지식과 감성.
- 이상훈(2011). 통일이후 교육체제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애시(2006). 통일 대비 남북한 교원양성체제 비교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재 외(2010). **한국교육 60년**. 서울: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장로 외(2012). **체제 전환국의 경험과 북한 교육개혁 방안**. 서울:도서출판 한울.
- 이채영(1993). 남북한 유아교육 비교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향규(2003). 통일 후 교육제도 통합과 사회적 삼투현상:독일과 한국. **통일문제연구**, 15(2), 273-293.

- 이향규 외(2010). **북한 교육 60년-형성과 발전, 전망**. 파주:교육과학사.
- 임영아(2007). 남북한 중등학교 화학교과서의 영역별 내용 비교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관수(2008). 통일한국 교육통합의 방향과 과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일환 외(2012). **비교교육학: 이론과 실제**. 파주:교육과학사.
- 정태범(2002). 교원교육의 방향과 과제. 서울:양서원.
- 조정아(2004). ‘직업적 혁명가’와 ‘동요하는 인테리’ 사이에서, **현대북학연구**, 7(2), 127-165.
- 조빛차(2014). 미술교과 내에서의 통일대비 교육의 필요성 및 교수학습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호현(2004). 북한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휘제(2011). **통일교육이론과 실제 방법론**. 서울:선인.
- 차승주(2003). 남북한 지리교과서 단원내용 비교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표 외(2010). **북한의 교육학 체계 연구**. 파주:집문당.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2006).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통일교육원.
-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2014). **2014 북한이해**. 통일교육원.
- 한만길 외(2001). 남북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12, 1-249.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파주:교육과학사.
- 한만길 외(2000). 북한 교육관계 법령 분석연구, CR2000-39. 한

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외(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연구  
보고 RR 2012-07. 한국교육개발원.

<북한 문헌>

교육신문 제12호 2012년 3월 22일  
제14호 2012년 4월 5일  
제40호 2012년 10월 4일  
제2호 2013년 1월 10일

인민교육

로동신문 250호 1977년 9월 7일  
2012년 9월 26일

<인터넷 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http://www.cybernk.net>>  
남북동행. <<http://www.ydank.org>>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베리타스 알파. <<http://www.veritas-a.com>>  
북한자료센터. <<http://unibook.unikorea.go.kr>>.  
자유북한운동연합. <<http://www.ffnk.net>>  
주한 미국 대사관. <<http://korean.seoul.usembassy.gov>>  
진학사 <<http://www.jinhak.com/>>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Elementary and Secondary Pre-service Teacher' s Training and Appoin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ong, Kyong-Nang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University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gone in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s,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since the Korean War, and the ideological differences have brought great gaps between the two Koreas. Much effort will be needed to recover the homogeneity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and teachers will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the unified Korea, as teachers affect students' emot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achievement. In other words, we need plans to integrate the two Koreas' teachers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elementary and secondary pre-service teacher' s

training and appointment in South and North Korea. Educational ideologies, the current statu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entrance examinations, and curriculums, the awarding of qualifications, and teacher recruitment were studied.

The differences are as follows: first, the two Koreas have different educational ideologies; South Korea adheres to the humanitarianism ( “Hongik Ingan” ) ideals of education, whereas North Korea adheres to their own ideology, Juche (self-reliance). Second, the two Koreas have different institutional years and school management system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Elementary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in South Korea are 4-year colleges, whereas those in North Korea are 3-year colleges. Secondary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in South Korea train teachers in various ways, whereas a few selective secondary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of North Korea trains teachers. Third, teacher training courses in South Korea are subdivided into different courses, whereas those in North Korea are integrated into 2~3 subjects. Fourth, students of North Korea are taught political education related to Kim Il-sung and Kim Jung-il from elementary school to the universities. Finally, newly qualified teachers in South Korea have to pass the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whereas there is not a teacher employment examination in North Korea, and students can find teaching jobs after graduation from pre-service training institutes.

The similarities are as follows. First, both Koreas have entrance examinations for their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Second,

the graduates from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in both Koreas can obtain a teacher' s certificate.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pre-service teacher' s training and appoint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cluding educational ideologies, curriculum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institutes, re-education and qualification levels of South and North Korean teachers should be considered and integrated to provide the best educational systems for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